

강의 개선방향 신임 교무처장에게 듣는다



신임 교무처장 변창구 교수는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기초교육원장과 교무부처장을 역임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지난 2년간 기초교육원장 및 교무부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서울대학교의 교육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창구: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학교가 교육기관인데 대개 자신의 연

구에 신경 쓰시느라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소홀히 하고 계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입각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학과의 실정에 따라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구난방으로 강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교과과정의 큰 문제점이고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 교육 문제입니다. 기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면서,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해 실천해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 교육이 전공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초 교육은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임의로 개설되는 강좌가 그대

로 운영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초 강좌가 필요합니다. ‘지식창출’ 강좌라고 할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글쓰기’나 ‘핵심교양’과 같은 강좌가 가장 큰 초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이나 말하기 능력과 같은 표현 능력을 강화시키는 강좌도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높이려면 언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강좌를 확대해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인데요.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직접 강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학과 소속 교수가 적다 듣가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전념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만 기초교육원장이 새로 오셨으니, 그 분이 맏아서 잘 해내실 것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서울대학교의 교육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및 활동은 무엇이며, 신임 교무처장으로서 어떤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창구: 지난 2년 동안 교무처는 인사 제도를 주로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는 기초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의평가, 새로운 강좌 신설, 강좌 개선, 전임대우강사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개선과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개선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교과과정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초교육원과 매우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학부 교육과정 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 단위로 바뀐 데도 있고, 학부의 명칭이 바뀌기도 했고, 협동과정도 많이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과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의 어떤 부분은 시대의 조류나 사회 현실에 맞게 변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과정 개선이 큰 틀의 개선이라면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 교육 내용의 개선이겠지요. 이 부분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강의평가제의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강의평가는 이미 교양과목에서 실시되고 있고 학부 강의는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강의에 많은 신경을 쓰실 것으로 보입니다.

| 특집 | 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에 성실하게 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교육의 질은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강의에 신경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학습개발센터: 일부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대해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강의평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변창구: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강의나 학점 받기 쉬운 강의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든지 하는 거지요. 이에 대해 약간의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학칙에 있는 성적 평가 규칙에 따라 평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소위 A학점 폭격기라는 강의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열심히 듣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어떤 과제물 내고 있고, 선생님과 조교들이 얼마나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는가에 따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덧붙여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데이터는 설문 항목에 “당신은 이 강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준비를 했습니까”라는 항목이지요. 이 항목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강의의 경우, 대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강의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보완되면 전체적인 강의의 질이 웬만큼은 균질해지겠죠. 그런 장치들을 앞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구상하는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창구: 가장 필요한 것은 강의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지난번에 핵심교양 교과목을 평가해 약간의 장려금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보상이 한 가지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획기적으로 교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교육 분야가 업적 평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점은 교수님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교육 부분은 웬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요. 이제는 교육 부분 평가에서도 확실한 편차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잘 한다는 것을 확실히 수치화 하는 것이지요. 연구는 논문 한 편만 더 쓰면 점수의 차이가 크지만, 강의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T.A. 지원을 통한 강의 지원도 한 방법입니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GSI(Graduate Student Institution)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200명 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핵심교양 T.A.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등록금 전액 면제와 월급 6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원생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T.A.들을 주로 대형 강의, 핵심교양, 기초 교육 강좌, 학문의 기초 강좌에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해주고, 토론도 이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강의를 잘 해주는 분들에게 좋은 T.A.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금전적인 형태로의 강의 지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포상 제도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점점 괴로워지니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들도 물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CTL)의 활동에 대해 간략한 평가와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창구: 학내의 교육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교무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교무처에서 공식적인 행정 루트를 통해서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교무처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앞으로 밀접하게 서로 협조해야 되겠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강의 개선을 위한 연구입니다. 우리 학교에 좋은 강의가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강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상당히 많을 텐데, 교무처에는 연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강의 개선안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버 강좌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이버 강좌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사이버 강좌를 계절 학기에서라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겨울 계절 학기가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출

| 특집 | 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석 수업이 쉽지 않으니까, 사이버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 학기에 도입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어떤 분야부터 시작해야 할지, 완전한 사이버 강좌로 할지, 사이버 상의 강의와 출석 강의를 병행할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공통 강좌나 대형 강좌들 중에 일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의뢰할 생각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해 평가하자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기관들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수학습개발

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탁월하고 의지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의 역사가 짧아서 짧고, 운신의 폭이 넓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변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경계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잘 수렴해 일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 문제에 대해 학내 선생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교무처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무처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C**